

지리 답사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조성욱**

Geography Educational Effects of Geographic Fieldwork: Focus on the Cognitive Aspect*

Sungwook Cho**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지리 답사의 다양한 교육적 효과 중, 가장 본질적인 인지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리 답사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첫째,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지리 지식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둘째, 교과서와 실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를 인식하여, 지식의 형성과 이해 과정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리 지식을 재의미화하여, 지식의 활용도와 지식 간 연결을 활성화한다. 넷째, 나선형 학습 효과로 인하여 심층적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욱 강화한다. 다섯째,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피상적인 이해가 아닌 내적 동기에 기반한 심층적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섯째, 능동적인 참여와 행동화를 통하여, 자신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어 : 지리답사, 인지적 측면, 교육적 효과, 실천적 지식, 심층학습, 나선형 학습 효과, 지리 지식의 재의미화, 행동화

Abstract : This study focused on the educational effect in cognitive aspect of geographic fieldwork, among the various educational effects. To summarize the cognitive aspects of geographic fieldwork, first,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construct the fragmented geographic knowledge based on experience and convert it into one's own practical knowledge. Second, it is possible to deep the formation and understanding process of knowledge by recognizing differences between textbooks and phenomena in the real world. Third, it revitalizes the utilization and connection of knowledge by re-meaning the existing geographic knowledge. Fourth, by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in-depth understanding due to the spiral learning effect, learned contents in the classroom are further strengthened. Fifth, the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the affective and cognitive domain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in-depth understanding based on internal motivation rather than superficial understanding. Sixth,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actively express one's knowledge through activ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rather than thought.

Key Words : Geographic fieldwork, Cognitive aspect, Educational effect, Practical knowledge, Deep learning, Spiral learning effect, Re-meaning of geographical knowledge, Activation

I. 서론

지리과에서 답사는 자신의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일상적인 연구활

동 방법이다. 또한 지리교육에서 답사는 다른 과목과는 다른 특징적인 학습 방법이며, 답사를 통하여 기존에 학습했던 지식을 실세계에서 확인하는 교육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지리학 및 지리교육에서 연구 및 교육 목적

*이 논문은 202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jbnu.ac.kr)

으로 실시하는 지리 답사는 지리학의 지식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답사를 통해 형성된 지식과 얹이 제대로 된 지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답사는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실세계에서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교실에서 배운 지식의 정합성과 함께 오류 및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연구실 또는 교실에서의 궁금증을 실세계에서 확인하고 해결하는 과정이고, 이론과 실제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연구 및 교육활동 과정이다.

지리교육에서 지리 답사(geographic fieldwork 또는 fieldwork)는 ‘야외조사’(류주현, 2004), ‘지역조사’(허은경, 2002) 등 답사의 초점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교실 밖에서 지리적 현상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활동(Oost *et al.*, 2011:309)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리 답사는 지리과목의 모험문인 지리학의 주요 연구방법이고, 지리교육에서는 과목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과목 특색적인 교수-학습 방법(Fuller *et al.*, 2000)이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실세계에서 확인하는 경험활동이고, 이론적 지식을 실천적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다양한 지역조사 기능과 탐구방법을 통한 문제해결방법을 취득할 수 있고, 활동 과정에서 상호 간에 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이종원, 2020:41). 즉, 지리답사를 통해서 교실에서 이해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확인하는 인지적 측면, 조사 방법과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는 기능적 측면, 단체활동을 통한 사회적 능력을 육성하는 사회적 측면,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알고 느끼면서 형성되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같은 정의적 측면 등 4가지 측면에서 지리답사의 교육적 효과를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 답사는 인지적 측면, 기능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의적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중 특히 인지적 측면에서 지리 답사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지리 답사의 교육적 효과는 답사의 목적과 답사에 참여하는 대상(지리학자, 지리교사, 예비 지리교사, 초중등학교 학생, 일반인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공통적인 핵심은 지리 지식을 습득하는 지식형성 과정에 관련된 인지적 측면에서의 효과이며, 이것은 답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기능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 그리고 정의

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답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리교육에서 지리 답사는 왜 실시하는가? 답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형성하고 수정하는가? 등과 같이 지리 답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서 특히 인지적 과정과 그 효과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리교육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지리 답사에 대한 정의와 지리과목의 교과 특징적 방법으로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인지적 측면 특히 지리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지리 답사의 역할과 효과를 살펴보고, 셋째, 지리교육에서 지리 답사의 의미와 역할을 재정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지리과의 지식형성 과정에서 답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답사의 필요성과 정당성, 인지적 측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교수-학습 방법, 기능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리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과 초중등학교 지리교육과정에서 답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리과목의 특징적인 학습 방법으로서 지리 답사가 다른 과목의 지식구성 방법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대학의 지리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실시해 왔던 다양한 답사(정기답사, 과목답사 등)와 중등학교 학생들의 답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한가에 대한 점검도 가능할 것이다.

II. 지리 답사의 정의와 교육적 효과

1. 지리교육에서 답사의 정의

답사(踏査)의 사전적 정의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 영어로는 ‘Geographical Exploration’으로 정의되어 있다(Naver 어학사전). 이와같이 답사의 사전적 정의는 ‘현장(교실 밖)’과 ‘직접 조사(직접 경험)’와 같이 학습 장소와 방법 측면에서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리 답사(地理踏査)는 지리적 현상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학자에게서 답사는 이

론적 지식이 아닌 실제적 지식, 간접적 이해가 아닌 직접적 이해, 간접 조사가 아닌 직접 조사를 통해 실제계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지리교육에서 이루어진 지리 답사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야외답사(fieldwork)’는 교실을 벗어나 실제 상황이나 실물을 직접 관찰, 경험하고 느껴봄으로써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오선민, 2013), ‘야외조사활동(fieldwork)’은 교실 밖의 모든 장소에서 실제계의 지리적 현상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Oost *et al.*, 2011:309), 지리학의 핵심적인 연구방법이자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교수·학습 방법(Kent *et al.*, 1997)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리교육에서는 지리 답사를 다양한 용어 즉, 야외조사, 야외답사, 야외학습, 야외조사활동, 현장조사, 지리답사, 지역조사, 체험, 여행, 탐방(탐사), 장소기반교육, 봉사학습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이종원, 2020:41). 그리고 지리교육에서의 ‘지리답사’는 모학문인 지리학의 핵심 연구방법에서 유래한 연구 및 학습 방법으로 지리과목의 학문 특성에 맞는 특징적 교육학(signature pedagogy)이다(Shulman, 2005; Seow *et al.*, 2019). 특히 구성주의 사조에서 학생 탐구 중심의 지리답사 활동은 지리교육의 상징적이면서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김민성, 2022; Kim, 2022).

이 연구에서는 지리교육에서 답사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지리답사(地理踏査, Geograpic Fieldwork)’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지리답사’의 정의를 지리과 수업과 관련하여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이라는 점, 직접 조사 활동을 통한 직접 조사와 관찰 그리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이라는 점, 교실에서 학습한 이론적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실제적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학습활동이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정의한다. 즉, 장소적 측면에서는 학습의 주요 장소를 교실 밖의 활동,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간접적 경험이 아니라 학습자의 직접적인 활동 경험, 교실 학습과 연계 학습(교실에서 이루어진 학습 내용의 확인, 오류 및 차이 인식, 새로운 질문의 형성 등)으로 정의한다.

2. 지리 답사의 교육적 효과

지리 답사의 교육적 효과는 인지적 측면(지리 지식의

형성과정), 기능적 측면(다양한 기능과 연구방법), 사회적 측면(사회성 및 협동)과 정의적 측면(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긍정적인 사회관계의 형성이 지식구성과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김민성, 2022:394), 위 4가지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리답사 활동을 통하여 예비 지리교사와 지리교사 그리고 학습대상자(초중고생)에게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는 공통성과 함께 차이점도 존재한다.

지리학자의 학문적 필수과정인 답사를 지리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 지리학과 지리교육에서 답사 활동의 차이는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리교육에서 답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지리답사는 교실과 교과서에서 배운 일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인가, 아니면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교실에서 배운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지적혼란과 동기유발(양병일, 2015;2017)을 일으키기 위한 것인가? 지리학에서의 답사가 인지적 측면 즉, 지식 형성 측면이 강하다면, 지리교육에서의 답사는 인지적 측면 이외의 기능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측면이 강하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지리 답사의 교육적 효과는, 교과서의 내용과 실제적 경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친숙한 장소에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고, 지리에 대한 흥미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하며,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소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구성주의적 도구이고, 야외 답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탐구기능을 향상시키고, 관찰 내용을 개념과 연계시켜 학생들의 이해를 강화시킨다(오선민, 2013:4). 또한 학생들이 실제 세계의 상황 안에서 실제적인 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임은진, 2009), 거시적으로는 지리학에서 추구하는 자연적, 문화적 사상들의 패턴과 지역결합의 실제 모습을 인식하게 해주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동안 지리의 기본 기능을 익히도록 하며(서태열, 2005), 추상적인 이론을 실제적이고 타당한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Herrick, 2009).

또한 학생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맥락 속에서 특정 지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험은 지식·기술·태도 등을 심도 있게 하며(Malone, 2008), 교실

에서 다룰 수 없는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의적인 측면에서 학습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을 더욱 크게 하고, 태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와 협동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Hope, 2009; Hovorka and Wolf, 2009; 이종원, 2016).

이종원(2016:104)은 지리답사의 교육적 효과를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세계에서 확인하고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식은 활성화되고 분절되었던 정보들이 통합되기도 하며(McEwen, 1996; Braund and Reiss, 2006; Hope, 2009; Stokes *et al.*, 2011), 실세계는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교과서의 이론이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의 내용과 실세계가 종종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며, 직접 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기능과 연구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Kent *et al.*, 1997; Fuller *et al.*, 2000; Roberts, 2013)고 정리하고 있다. 즉, 지리 답사는 인지적 측면에서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세계에서 적용해 보고,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서 분절되어 존재하던 정보들이 활성화되면서 통합되며, 이론이나 모델의 실생활과의 차이를 인지하는 효과가 있다.

지리 답사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상호작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학습의 기반이 되며, 장소 탐색을 통한 공간 요소의 발견은 호기심을 자극하여 심층학습을 촉진하고, 학습한 개념을 실제 현장에서 체화적(embody)으로 이해하게 되어 이해의 수준을 높이며, 경관의 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성(positionality)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답사를 통한 전이가능한 역량(의사소통능력, 조사능력 등)은 진로와의 연계가능성을 높여준다(김민성, 2022:394).

또한 지리 답사는 지리과목의 모험문인 지리학의 핵심적인 연구방법이자,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교수·학습 방법이며(Kent *et al.*, 1997; Pawson and Teather, 2002; Lambert and Reiss, 2014), 지리답사를 통해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하고, 야외조사 기술을 익히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Jenkins, 1994; McEwan and Harris, 1996; Hovorka and Wolf, 2009; 이종원, 2022:20).

이와 함께 지리 답사는 개념적, 인지적 성장뿐 아니라 학생들의 비인지적 역량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이종원, 2016:104). 즉, 지리답사를 통해 협력과 팀워크를 경험할 수 있고, 학생들 간, 학생들과 교사 간의 관계가 향상

되며, 이렇게 향상된 관계는 지식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hew, 2008; Hovorka and Wolf, 2009; Lambert and Reiss, 2014), 자신들이 살고있는 주변지역을 조사할 경우 장소에 대한 애착심을 느낄 수 있다(Rickinson *et al.*, 2004). 또한 학생들에게 지리과목의 과목 특징적인 기능(mapping, 데이터 수집과 분석)과 전이 가능한 기능(독립적 학습, 문제해결) 및 대인관계 기능을 개발할 기회를 준다(Andrews *et al.*, 2003). 특히 숙박형 답사일 경우 교육과정상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인 만남으로서의 가치 즉, 대인관계 기능에서 학습기회를 부여한다(Hope, 2009:170). 즉, 지리 답사의 교육적 효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직접 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과 연구방법 습득, 팀워크와 관계형성 등의 사회적 측면, 장소에 대한 애착심 등의 정의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종원(2020)은 지리답사 관련 논문 80편을 대상으로 6가지 준거를 적용하여 지리답사의 성격과 연구변화를 분석했는데, 답사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프로그램 적용 및 교육적 효과 등 실증적 연구의 비중이 높아졌고, 연구 대상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다수이며, 특히 2010년 이후부터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지리답사가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리답사의 교육적 효과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표 1), 먼저, 인지적 영역에서는 교실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적 경험의 연결에 의한 지식형성, 심층학습 촉진과 장소의 재발견, 자신의 위치성 성찰 기회 제공 등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 기능적 영역에서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표현하는 기능, 의사소통능력,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기회 등을 통하여 지리과 이외에 다른 과목 학습이나 진로와 연계되는 측면 등 지리교육의 간접적 가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대인관계기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의적 영역에서는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긍정적 상호작용 효과, 학생 간과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형성으로 인한 학습에 대한 긍정적 효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 형성 등의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지리답사를 통해서 자신이 학습한 지리지식의 이론과 실제의 통합 그리고 이론적 지식의 실천적 지식으로의 변화, 다양한 지역조사 기능 학습을 통한 조사 및 문제해결능력의 함양, 단체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능 향

표 1. 4가지 측면에서 지리답사의 교육적 효과

영역별	교육적 효과
1. 인지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의 내용과 실제적 경험의 연결 • 교실에서 학습한 개념과 현장 관찰 내용의 연계 • 분절되었던 정보들의 통합과 지식의 활성화 • 이론과 모델이 실세계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 • 학습 소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적 도구 • 학습한 개념을 현장에서 이해하여 이해 수준 제고 • 실제 상황에서 실제적 과제 해결 기회 제공 • 추상적인 지식을 실제적이고 타당한 지식으로 전환 • 친숙한 장소에서 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발견 • 장소와 공간적 요소에 의한 호기심 촉발과 심층학습 촉진 • 다양한 맥락(정치적·사회적·경제적) 속에서 지역 이해
2. 기능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탐구기능 향상 • 진로와 연계 가능성 제고 • 전이가능한 역량 습득을 통한 지리 과목의 유용성 인식 •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 기회 부여 • 조사능력, 야외조사기술,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 및 표현 능력 제고
3. 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형성을 통한 지식구성에서의 긍정적 효과 • 적극적 참여와 협동학습 기회 제공(사회성, 협력과 팀워크) • 학생들 간,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향상 • 의사소통능력 향상
4. 정의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 학습태도의 긍정적인 변화와 학습에 대한 관심 증가 • 호기심 유발로 학습에 대한 즐거움 유도 • 지역과 공간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 주변지역에 대한 관심 유발 • 장소와 지역민과의 접촉 기회 부여 • 장소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 형성

상,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정의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III. 인지적 측면에서 지리 답사의 교육적 효과

1. 지리교육에서 지리답사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

지리답사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을, 대상에 따라 대학의 지리과 학생(전공)과 지리 교사(전공) 그리고 중등학교 학생(비전

공)으로 구분해서 특징을 추출해 본다.

먼저 사범대학 학생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 김민성(2022)은 사범대학 예비교사 2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성적 성찰문 분석을 중심으로 반복적 내용분석법을 통해 학습자에게 나타난 4가지의 변화를 추출했다. 그 결과 답사를 통해서 첫째, 교육과 관련하여 지리답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둘째, 탐구수업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셋째,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지리 개념이나 관점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기회가 되었고, 넷째, 지리답사 교수내용지식(FPACK: Fieldwork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를 고려하여 지리적 개념을 지리 답사의 맥락에 적용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송언근(2016)은 교육대학 예비교사 8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답사코스 개발 프로젝트가 역사와 지리의 관계인식에 미친 영향을 역사 이해에 따른 지리의 의미와 지리 이해에 따른 역사의 의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특히 학생들은 역사의 이해에 따른 지리지식의 변화로, 건조하고 파편적이던 지리지식이 역사적 삶을 이해하는 지리지식, 생생한 지식으로 변화하는 지리지식의 재의미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같은 장소이지만 단순한 여행의 장소에서 역사를 포함하는 장소 인식으로 바뀌어, 학생 스스로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하는 장소감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종원·허소정(2019)은 중등교사 11명을 대상으로 한 탐구기반 야외조사활동 교사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변화를 지식과 역량, 진로, 수업의 3가지 측면에서 연수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지식과 역량 측면에서 연수 전에는 지리적 관점이나 안목,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할 기회, 문제해결이나 창의적 사고 능력을 거론하였으나, 연수 후에는 탐구 수행을 위한 지식이나 역량(탐구질문과 안내질문, 지리조사방법과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활동 중심수업 등)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진로 측면에서는 연수 전에는 지리학의 학문영역이나 답사 주제를 진로와 연결하는 경향이었으나(지역개발, 면접, 환경분야 등), 연수 후에는 일반적인 탐구과정이나 탐구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전공분야와 무관한 탐구경험, 사회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수업 측면에서는 학습자,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면, 연수 후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변화했다.

예비교사 113명과 현직교사 71명을 대상으로 지리교육에서 공간적 사고 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성향을 비교한 연구(이진희, 2023)에서는, 예비교사들이 현직교사에 비해서 지리수업을 통해 공간적 사고력을 가르치려는 태도에 더 긍정적이었으며, 현직 교사들은 공간적 사고나 교육 그리고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교육이 연수 등을 통해서 더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종원 등(2017)은 4개 고등학교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해안사구에 대한 이해도는 '바닷가의 모래 언덕'과 같은 피상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내용이 풍부해졌으며, 학생들이 지식 생산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은 오래 지속되고(Healey and Matthews, 1996), 심층 이해로 이어졌다(Herrick, 2009)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름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는데, 해안사구의 형성과정과 식생 등을 알게 되었고, 해안사구는 그저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형성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구의 구조, 식생, 퇴적물, 바람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해안사구가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바람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오개념 교정), 교과서에서 그림으로 볼 때보다 훨씬 작았다는 반응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리교육에서 지리답사를 통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변화는(표 2), 먼저 예비교사들은 건조하고 파편적이던 자신의 지리지식(개념과 관점)을 재의미화하는 등의 지식을 형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지식을 전수하는 입장으로서의 변화 즉, 배우는 사람이 아닌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리답사의 의미, 수업전략, 답사의 맥락에서 지리적 개념의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직교사들은 탐구수업 수행을 위한 지식과 역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특히 교수·학습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심을 가지는 효과가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관념에서, 실제 적용가능한 구체화에 관심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중등학교 학생들은 피상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지식에서 체계적이고 내용이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였고, 학습한 내용이 오래 지속되는 효과, 심층이해 효과, 단순에서 종합적 이해에 이르게 되었으며, 오개념의 수정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교과서와 실제의 차이를 인식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즉,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리답사는 지식의 형성 측면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하나의 틀에 의해서 연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여 대상별 특성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지식형성의 입장과 교육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지식을 형성하는 입장에서의 효과(파편적 지식의 재구조화, 개념과 관점의 재의미화, 심층 및 종합적 이해, 오개념의 수정, 장소감의 변화 등)와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적인 입장에서의 효과(가르치는 지식으로의 변환, 지리 답사의 맥락으로 적용 시도, 구체적인 탐구 수행을 위한 지식과 역량 등)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상에 따라서 예비 지리교사들은 자신의 지식형

표 2 지리답사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학습자의 변화

연구자	변화 내용
김민성 (2022)	<p>[대상 : 사범대학 예비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관련하여 지리답사의 의미 생각 기회 • 탐구수업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 • 자신의 지리 개념이나 관점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 기회 • 지리적 개념을 지리답사의 맥락으로 적용하려는 시도
송언근 (2016)	<p>[대상 : 교육대학 예비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하고 파편적이던 지리지식이 역사적 삶을 이해하는 지리지식, 생생한 지식으로 변화하는 지리지식의 재의미화 • 같은 장소이지만 단순한 여행의 장소에서 역사를 포함하는 장소인식으로 바뀌는 등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장소감의 변화
이종원 허소정 (2019)	<p>[대상 : 지리과 중등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과 역량 측면 : 탐구 수행을 위한 지식이나 역량 • 진로 측면 : 일반적인 탐구과정이나 탐구능력 • 수업 측면 : 추상적이고 관념 중심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변화
이진희 (2023)	<p>[대상 : 지리과 중등교사와 예비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교사들은 지리수업을 통해 공간적 사고력을 가르치려는 태도에 긍정적 • 현직교사들은 공간적 사고나 교육의 필요성,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 필요성 인식
이종원 오선민 최광희 (2017)	<p>[대상 : 중등학교 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지식이 피상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내용이 풍부해짐 • 학습한 내용이 오래 지속, 심층이해, 단순에서 종합적 이해 • 오개념 수정, 교과서와 실제의 차이 인식 •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켜 자발적인 참여, 동료들과 협력 기회 증가 • 조사기능 향상

성과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양쪽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중등 지리교사는 지리지식의 형성보다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 중등학교 학생들은 주로 지식의 형성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인지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

지리 답사의 교육적 효과 중 특히 인지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지리 답사의 본질적 효과로서, 왜 지리교육에서 지리 답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밝혀진 인지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다음 6가지로 재정리해서 논의해 본다.

첫째, 지리 답사(geographic fieldwork)는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세계에서 확인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파편적이고 본질적으로 존재했던 자신의 지식이 활성화되어 지식들이 통합되고 융합되는 효과가 있다 (McEwen, 1996; Braund and Reiss, 2006; Hope, 2009; Stokes *et al.*, 2011; 이종원, 2016; Firoomumwe, 2019). 즉, 교실에서 이루어진 학습 내용을 실제 세계에서 확인하고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련된 지식들이 활성화되고 통합되어 지리지식들이 융합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교실 내외 교실 밖 지리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3), 교실 내의 지리지식은 일반화되고 탈맥락화된 지식의 추상적인 이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교실 밖의 지리지식은 구체적이며 실체적이고 맥락적인 상황지식이며, 다양하고 예외가 있는 실세계를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같이 교실 안

표 3. 장소에 따른 지리 지식의 차이

장소분류	지리 지식의 특성
교실 내	일반적 지식, 일반화된 지식, 탈맥락적 지식, 이해 중심, 일반화와 단순화
교실 외	구체적 지식, 실제적인 지식, 맥락적 상황에서의 지식, 경험 중심, 예외와 다양성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단순하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중심과 경험 중심이라는 학습 방법상의 차이, 추상적인 지식과 구체적인 지식이라는 지식의 성격 차이, 전형적이고 단순화된 상황과 다양하고 예외적 상황을 포함하는 내용상의 차이점이 있다.

지리 답사는 서로 성격이 다른 이해와 경험 기반에 형성되는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을 연결시켜 주는 교육활동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인식 속에서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있던 관련 지식을 활성화하고 관련지으며 통합해 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일반화되고 단순화되며 추상화되었던 지식을 맥락적이고 구체화한 지식으로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지리적 개념의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실세계에서 다양한 예외적인 상황과 연관성 이해를 통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인지적 측면에서 지리 답사의 역할은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교과서 내용, 이해한 개념, 이론과 모델, 추상적 이론)을 실제 상황(실제적 경험, 관찰 내용, 이해를 위한 구성적 도구, 실제적 과제)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지식이 실천적 지식으로 바꾸어지는 지식형성 과정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리답사는 이론을 실제 경험과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거꾸로 실제 상황을 통해서 이론과 이해 중심의 교실 학습을 강화하는 효과 즉, 이해와 경험, 이론과 실제의 상호보완적인 나선형 학습 효과가 있다(Kent *et al.*, 1997:319).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이론과 실제의 연결은 행동(action)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데, 행동은 반성적 활동을 포함한다(Hope, 2009:170). 즉, 지리답사를 통한 지식의 구축은 나선형으로 교실 학습을 강화하고,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단순화된 일반적 지식의 이해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실세계의 이해를 통해 지리지식을 이해한다면 더 깊은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여, 더 높은 수준의 이해

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리 답사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 즉, 벽돌만을 쌓아올릴 때 쌓아올릴 수 있는 높이의 한계가 있고, 시멘트의 모르타르만으로 쌓아 올릴 때 쌓을 수 있는 높이의 한계가 있지만, 벽돌과 모르타르의 결합으로 벽돌을 쌓아올릴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셋째, 교과서의 내용은 일반화되고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데 비하여, 실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인식하여 지식의 형성과 이해 과정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즉, 지리답사를 통하여 실세계는 복잡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이론이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책의 내용과 실세계가 종종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된다(이종원, 2016:104).

지리 답사를 통한 실세계의 직접 경험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지적 혼란과 호기심 유발 및 동기유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양병일, 2015;2017). 또한 사범대의 예비교사들은 교과서 형태의 지식 이해와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지식으로 전환하는 교수학적변환(didactic transposition)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수동적으로 이해한 지식과 능동적으로 자신이 구성한 지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리 답사를 통해 형성하는 지식은 교실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형성한 지식과 비해서 개인에 따라서 훨씬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고, 훨씬 다양한 설명과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답사지의 선정에서 선지식의 확인을 위한 견학적 답사활동과 학습자의 일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답사활동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Bland *et al.*, 1996; 이간용, 2016).

넷째, 지리 답사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지적호기심과 자신에 대한 성찰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심층학습(deep learning)을 촉진시킨다(Hope, 2009:170). 지리 답사는 학생들의 정의적 반응(감정, 느낌, 가치)을 통하여 학습자의 흥미(enjoyment)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흥미유발은

심층학습을 증진시킨다(Hope, 2009:170). 외적 동기에 의한 피상적 학습(surface learning)은 부가되고(imposition), 큰 그림에 대한 이해에는 이르지 못하며, 무비판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심층학습(deep learning)은 그 자체로 학습을 촉진시키고, 비판적 사고와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Hope, 2009:170). 즉, 지리 답사는 학생들의 정의적인 반응이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여, 심층학습을 유발하는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Boyle *et al.*, 2007; Hope, 2009).

또한 지리 답사는 다른 사람과 직접적이고, 활동적으로 대면(direct, active encounter)하면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적으로 자극(jolt)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preconception)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도전 기회를 주며, 동료애와 세심함을 이끄는 데, 이러한 것들은 심층 이해에 도움을 준다(Hope, 2009:180). 즉, 지리답사는 정의적 측면에서 흥미 유발과 자극을 통해서 학습자를 자극하여 피상적 학습을 심층학습으로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

다섯째, 지리 답사는 실제 환경에서 직접적인 학습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동적(passive) 학습보다는 능동적(active) 학습을 촉진시킨다(Kent *et al.*, 1997). 즉, 이슈와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active engagement), 생각(thought)만이 아닌 행동화(in action)로 인해 심층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Hope, 2009:170). 지리답사는 내가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직접 경험해 보는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실에서의 수업과는 달리스스로 생각하고, 사고를 확장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능동적으로 표출하여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발생한다.

여섯째, 지리 답사는 지리지식의 재의미화와 장소감에 변화를 가져온다(송언근, 2016). 특히 역사 이해나 과학적 이해 등을 부가할 경우 지리지식에 변화를 유발하여 건조하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지리지식이 역사적 삶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지리지식, 지리지식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지리지식의 재의미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결과 같은 장소이지만 여행의 장소에서 역사와 과학 등을 포함하는 장소 인식으로 바뀌어 학습자 스스로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장소감의 변화를 가져온다. 즉, 나

와는 관계없이도 존재하고 있던 장소나 지역이 나의 인식에 들어와 나의 장소와 지역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교육적 효과가 발생한다.

즉, 지리 답사는 학습자 개개인의 인식 속에 건조하고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지리지식을 지역을 기반으로 기존의 다양한 지식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정적으로 존재하던 지식을 활동적인 지식으로 변화시켜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의 융합과 재의미화를 촉진시킨다. 지리지식의 재의미화는 지식의 활용도를 높이고, 의미있는 연결을 통하여 기억을 활성화시키며, 지역에 대한 자신의 관점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에 투영되어 장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계 강화를 가져와 자신과 지역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즉, 지리 답사를 통하여 친숙한 장소이었지만 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장소와 공간적 요소에 의한 호기심을 촉발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지역의 이해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리 답사는 지리교육의 상징적이면서 특징적인 학습 방법이며(김민성, 2022:394),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세계에서 확인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답사 과정에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지식이 활성화되고 분절되었던 정보들이 통합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론을 실제 경험과 연결하는 기회를 주며, 이렇게 형성된 지식은 나선형으로 교실학습과 상호작용하여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일반화되고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교과서와 실세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의 차이를 인식하여, 지식 형성과 이해 과정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지적 호기심과 성찰 기회를 통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심층학습을 촉진시키며,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학습내용의 심층 이해에 이르게 하며, 지리지식의 재의미화와 장소감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표 4).

표 4. 인지적 측면에서 지리 답사의 교육적 효과

주요 효과	주요 내용
1.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지식을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 • 파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존재했던 지식들의 통합 효과 • 이해 중심과 경험 중심이라는 학습 방법의 차이 • 추상적인 지식과 구체적인 지식이라는 지식의 성격 차이 • 전형적인 상황과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는 내용상의 차이
2. 나선형 학습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와 경험, 이론과 실제의 상호보완적인 나선형 학습 효과 •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이해 가능 효과
3. 지식의 형성과 이해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적으로 이해한 지식과 능동적으로 자신이 구성한 지식의 차이 •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지적 혼란, 호기심 및 동기 유발 • 교과서의 전형적인 사례와 실제계의 다양한 구체적 현상의 차이 • 아는 지식에서 가르치는 지식으로의 교수학적변환 경험
4. 심층학습(deep learning)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적인 학습이 아닌 심층학습의 효과 • 학생들의 정의적인 반응을 유발하여 심층학습 유발 • 자신의 선입견에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심층 이해에 도움
5. 능동적(active) 학습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thought)만이 아닌 행동화(in action)로 심층 이해 유도 •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능동적으로 표출 및 활용
6. 지리 지식의 재의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하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지리지식에 새로운 의미 부여 • 나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던 장소나 지역이 나의 인식에 들어와 나의 장소와 지역으로 새롭게 인식 • 지리지식의 재의미화는 지식의 활용도를 높이고 의미있는 연결을 통하여 기억을 활성화

IV. 논의 및 결론

1. 지리 답사의 방향성 논의

지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지리 답사에 대한 연구는 탐구기반, 탐구방법, 새로운 테크놀로지 적용 등의 기능적 측면과 학습자 활동 중심과 학생들의 협력과 태도의 긍정적 변화 측면의 사회적 측면에 비중이 주어졌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지리 답사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는 지리과목 뿐 아니라 다른 과목 학습이나 진로 설계에서 간접적 효과가 확실하다는 측면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종원, 2023). 기능적 측면의 강화는 지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설계 등에서 지리과목 학습의 유용성을 인식시키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 답사의 본질적인 측면(인지적 측면)보다 기능적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중등학교 교육에서 지리과목의 유용성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지리과목 자체의 유용성 보다는 다른 과목이나 사회생활에 유용한 과목으로 과목의 위치가 잘못 위치 지워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지리 답사를 통한 학습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가 1차적으로 인식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그리고 정의적 측면에서의 간접적 효과도 있다는 점을 위치지를 필요가 있다. 즉, 지리과목의 정체성과 특징적 교육학으로서의 지리 답사의 위치를 확인가기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분명한 교육적 효과가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지리과목에서 지리 답사가 필요한가? 이것이 다른 과목의 학습 방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면, 과학과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실에서의 학습활동은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직접 활동을 통한 과학교육의 본질적인 교육효과 즉 인지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 때문에 유용성을 인정받는 것과 같이, 지리답사 역시 간접적인 교육적 효과와 함께 본질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지리 답사의 인지적 측면 즉 본질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예비 지리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지리 답사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중등학교 학교 학습활동에서의 지리 답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리 답사의 본질적인 의미와 효과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 지

리 답사의 필요성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리 답사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지식형성 과정에서의 효과와 지식형성 방법에서의 효과로 재분류할 수 있다(표 5). 즉, 지리 답사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효과 중에서, 먼저 지식형성 과정에서의 효과로는 첫째,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지리지식을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둘째,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 실세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리지식을 구체화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리지식을 재의미화하여 지식의 활용도와 연결을 활성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식형성 방법 측면에서의 효과는 첫째, 이해와 경험, 이론과 실제의 나선형 학습 효과로 인하여 심층적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실 수업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피상적인 이해가 아닌 내적 동기에 기반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 셋째, 생각이 아닌 행동화로 인하여 자신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리답사는 지리학의 연구 방법이지만, 지리과목의 독특하고 중요한 학습방법(mode of learning)이기도 하다(Fuller *et al.*, 2006). 그러나 교육적 효과(pedagogical benefits)에 비해서 이론화가 미흡한 상태이고(Nairn, 2005),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하기보다는 상황적이고 추론적으로 지리 답사의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Foskett, 1999:160). 그리고 지리과목에서 지리 답사가 교육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리 답사와 학생들의 학습사이의 관계 및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Fuller *et al.*, 2006:93; Hope, 2009). 또한 지리답사와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과의 관계(Dunphy *et al.*, 2009), 지리답사에서 장애학생(disability student)의 참여 가능 문제(field access)(Collins *et al.*, 2022)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리답사의 대상에 따른 답사목적 및 그에 따라 적절한 답사방법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지리학자, 지리교육자(교사), 예비 지리교사(대학생) 그리고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리 답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답사를 통하여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교실수업과는 어떤 차이와 영향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지리 답사의 본질적 측면인 지리 답사를 통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지리 답사의 필요성에 대한 본질적인 효과가 명확해지면, 그에 따른 방법론적인 탐구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리 답사를 통한 기능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정의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는 지리학적인 의미보다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크다. 지리학에서 지리학습을 위한 지리 답사와 지리교육을 위한 지리 답사는 답사로 인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다. 그동안 지리교육 연구에서는 지리 답사의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리교육에서 지리 답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교육적 효과인 인지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지리 답사의 인지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정리하면, 첫째,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지리지식을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지식이 활성화되고 분절되었던 정보들이 통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 실세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리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교과서와 실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를 인식하여 지식의 형성과 이해 과정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리지식을 재의미화하여 지식의 활용도와 연결을 활성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소감에 변화를 가져온다. 넷째, 이해와 경험, 이론과 실제의 나선형 학습 효과로 인하여 심층적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긍정

표 5. 인지적 측면에서 지리 답사의 효과 재분류

지식형성 과정	지식형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지식을 실천적 지식으로 전환 • 실세계를 중심으로 지식의 재구조화 • 기존 지리지식의 재의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선형 학습 효과로 인한 심층이해 • 내적동기에 의한 심층이해 • 행동화와 능동적 표출

적 상호작용으로 피상적인 이해가 아닌 내적 동기에 기반한 심층적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섯째,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생각이 아닌 행동화를 통하여 자신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리 답사의 목적과 방법은 대상과 초점에 따라서 달리 설정했을 때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예비 지리교사는 인지적 측면과 교수학적변환 측면에 중점을 둔 지리 답사가 필요하고, 현직의 지리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리 답사는 교수-학습 방법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지리 답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리를 전공으로 하지 않는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 답사는 지리 답사의 인지적 효과와 함께 기능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정의적 측면 등 간접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지리 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민성, 2022, “탐구기반 지리답사 기획 프로젝트를 통한 지리답사 교수내용지식 함양,” 한국지리학회지, 11(4), 393-405.

류주현, 2004, “지리교육과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인 야외 조사 교수-학습방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343-353.

서태열, 2005, 「지리교육학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송언근, 2016, “답사 코스 개발을 통한 역사적 주제의 시·공간적 접근 -이순신 장군 해전지 답사 코스 개발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4), 131-149.

양병일, 2015, “지리적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재 개발의 전략,” 사회과교육, 54(4), 103-114.

양병일, 2017, “사회과 교육에서 고차적 사고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재의 개발,” 사회과교육, 56(4), 113-130.

오선민, 2013, 「중등학교 지리교사들의 야외 답사 실행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간용, 2016, “일상 공간에 대한 답사 활동의 지리 교육적 함의: G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답사 활동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1(6), 915-933.

이종원, 2016, “21세기 역량 개발을 위한 야외조사활동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99-117.

이종원, 2020, “지리답사 연구의 동향 -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2), 39-56.

이종원, 2022, “학습자 중심 지리답사를 위한 교사연수와 실천의 변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2), 19-32.

이종원, 2023, 「새로운 사회 수업의 발견」, 서울: 창비.

이종원·오선민·최광희, 2017, “조사형 야외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적 효과 -해안사구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2), 129-150.

이종원·허소정, 2019, “탐구기반 야외조사활동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교사들의 연수에 대한 만족도와 야외조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2), 113-129.

이진희, 2023, “지리학습을 통한 공간적 사고 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간 성향 비교,” 한국지리학회지, 12(2), 297-312.

임은진, 2009, “실제적 활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지리 수업에의 적용,” 사회과교육, 48(4), 1-17.

허은경, 2002, “지역 조사 프로젝트 학습의 설계와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2), 61-81.

Andrews, J., Kneale, P., Sognez, W., Stewart, M., and Scott, T., 2003, Carrying out pedagogic research into the constructive alignment of fieldwork, *Planet*, Special Issue 5, 51-52.

Bland, K., Chambers, B., Donert K., and Thomas, T., 1996, Fieldwork, in Baily, P., Fox, P., eds., *Geography Teachers' Handbook*, Sheffield: The Geographical Association.

Boyle, A., Maguire, S., Martin, A., Milsom, C., Nash, R., Rawlison, S., Turner, A., Wurthman, S., and Conchie, S., 2007, Fieldwork is good: the student perception and the affective domain,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1(2), 299-317.

Braund, M. and Reiss, M., 2006, Towards a more authentic science curriculum: The contribution of out-of-school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8(2), 1373-1388.

Chew, E., 2008, Views, values and perceptions in geographical fieldwork in Singapore schools,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7(4), 307-329.

Collins, T.D., Atchison, C.L., and Whitmeyer, S.J., 2023, A critical incident analysis of inclusive fieldwork with

- students as co-researcher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7(4), 513-532. <https://doi.org/10.1080/03098265.2022.2122029>
- Dunphy, A. and Spellman, G., 2009, Geography fieldwork, fieldwork value and learning styles,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8(1), 19-28.
- Firomumwe, T., 2019, Experiences out of the Classroom: The importance of fieldwork in learning geography at secondary school, *i-manager's Journal on School Educational Technology*, 14(3), 16-24.
- Foskett, N., 1999, Forum: fieldwork in the geography curriculum -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research issues,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8(2), 159-163.
- Fuller, I., Edmondson, S., France, D., Higgitt, D., and Ratinen, I., 2006,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effectiveness of geography fieldwork for learning,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0(1), 89-101.
- Fuller, I., Rawlinson, S., and Bevan, R., 2000, Evaluation of student learning experiences in physical geography fieldwork: Paddling or pedagog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4(2), 199-215.
- Healey, M. and Matthews, H., 1996, Learning in small groups in university geography course: Designing a core module around group project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0(2), 167-180.
- Herrick, C., 2009, Lost in the field: Ensuring student learning in the "threatened" geography fieldtrip, *Area*, 42(1), 108-166.
- Hope, M., 2009, The importance of direct experience: A philosophical defence of fieldwork in human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3(2), 169-182.
- Hovorka, A. and Wolf, P.A., 2009, Activating the classroom: Geographical fieldwork as pedagogical practice,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3(1), 89-102.
- Jenkins, A., 1994, Thirteen ways of doing fieldwork with large classes/ more student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18(2), 143-154.
- Kent, M., Gilbertson, D.D., and Hunt, C.O., 1997, Fieldwork in geography teaching: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pproache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1(3), 313-332.
- Kim, M., 2022, Developing pre-service teachers' fieldwork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through designing enquiry-based fieldwork,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46(1), 61-79.
- Lambert, D. and Reiss, M., 2014, *The Place of Fieldwork in Geography and Science Qualifications*,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Malone, K., 2008, *Every Experience Matters: An evidence based research report on the role of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 for children's whole development from birth to eighteen years*, Report commissioned by Farming and Countryside Education for UK Department,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Wollongong, Australia.
- McEwan, L. and Harris, F., 1996, The undergraduate geography fieldwork: Challenges and change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0(3), 411-421.
- McEwen, L., 1996, Fieldwork in the undergraduate geography programme: Challenges and change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0(3), 379-384.
- Nairn, K., 2005, The problems of utilizing 'direct experience' in geography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9(2), 293-309.
- Oost, K., Vries, B.D., and Van der Schee, J., 2011, Enquiry-driven fieldwork as a rich and powerful teaching strategy-school practices in secondary geography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20(4), 309-325.
- Pawson, E. and Teather, E.K., 2002, 'Geographical expeditions': Assessing the benefits of a student-driven fieldwork method,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6(3), 275-289.
- Rickinson, M., Dillon, J., Teamey, K., Morris, M., Choi, M. Y., Sanders, D., and Benefield, P., 2004, *A Review of Research on Outdoor Learning*, London: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King's College.

조성욱

Roberts, M., 2013, *Geography through enquiry: Approaches to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secondary school*, Sheffield, UK: The Geographical Association.

Seow, T., Chang, J., and Irvine, K.N., 2019, Field-based inquiry as a signature pedagogy for geography in Singapore, *Journal of Geography*, 118(6), 227-237.

Shulman, L.S., 2005, Pedagogies of uncertainty, *Liberal Education*, 91(2), 18-25.

Stokes, A., Magnier, K., and Weaver, R., 2011, What is the use of fieldwork? Conceptions of students and staff in geography and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5(1), 121-141.

Naver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

교신 : 조성욱,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투고접수일: 2024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 2024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19일